# 4·16, 가슴으로 기억할게요…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념기간 운영

## 광주시교육청, 청소년들이 기획한 '학교로 간 세월호'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4·16세월호, 가슴으로 기억할게요!'를 슬로건으로 오는 12~21일 10일 동안 추념기간을 운영한다.

추모기간 동안 관내 학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대면 및 비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자율적인 추모행사와 계기교육 등을 진행하게 된다.

지역 청소년단체와 함께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학교와 마을로 간 세월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관내 40개 학교와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세월호 기억공간을 구성하는 물품과 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 기억공간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추념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애도와 추모를 표하고, 관련 교육활동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사이버 추모관(http://svc1.gen.go.kr/416)도 개설·운영한다. 작년 사이버 추모관에는 1만 여 명 이상의 교육가족들이 방문해 추모의 글을 남긴 바 있다.

시교육청은 직원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의지를 다지는 추모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16일 오전 9시 대회의실에서는 교육감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약식 추모식을 거행하고, 전직원들은 청내 방송을 통해 시청하게 된다. 또 본관 1층에 '세월호 기억 공간'을 마련해 사진전시, 노란리본 달기, 추모글 남기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굳은 다짐을 이어가게 한다"며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념행사에 많은 학생, 학부모, 직원들이 동참해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4.16세월호, 가슴으로 기억할게요!'를 슬로건으로 오는 12~21일 10일 동안 추념기간을 운영한다. 지역 청소년단체와 함께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학교와 마을로 간 세월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관내 40개 학교와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세월호 기억공간을 구성하는 물품과 정보 등을 제공한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찾아가는 기초학력 컨설팅' 운영

### 기초학력 전담교사와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습지원 대상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8일 광주우산초와 광주봉주초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초학력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찾아가는 기초학력 컨설팅'을 통해 단위학교 기초학력 두드림팀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두드림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학력 두드림팀은 교감, 담임·상담·특수·보건교사, 교육복지사 등 학교 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고, 학습장애·정서행동 문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기초학력 통합지원 시스템이다.

'찾아가는 기초학력 컨설팅'은 매주 화·목요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내 기초학력 전담교사와 컨설팅위원의 학교 방문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에서는 두드림팀 구성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학생 맞춤형 지원 정보와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또 두드림팀 운영상의 어려운 점을 함께 고민하고, 학교 두드림팀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연계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교감은 "인지·정서·행동·환경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두드림팀이 살아나야 학생의 삶을 두루 살필 수 있고, 학생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두드림팀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수시로 소통해 학교-교육청-유관 기관의 연계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습지원 대상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8일 광주우산초와 광주봉주초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초학력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 제17회 공직자 혁신교육, '90년생이 온다' 저자 임홍택 특강

광주광역시는 간부 공무원과 신세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대 간 소통을 위해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 초청 특강을 9일 개최했다.

'제17회 공직자 혁신교육'으로 열린 이번 특강은 '새로운 세대와 갈등 없이 소통하기'라는 주제로, 공직사회 내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가 증가하면서 선·후배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적극행정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임 작가는 "공직에 진입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90년대생들과 선배 공무원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세대 공무원의 특성과 문화, 일명 '꼰대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어느 조직이나 신·구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젊은 세대를 위한 조직이 아닌 선배세대가 만들어 놓은 가치와 규범에 틀을 맞추기 때문이다"며 "선·후배 세대가 함께 공감해야 사회가 건강성을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시 인사정책관은 "선·후배 공직자들이 진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관행과 불합리한 공직문화를 개선하는데 모든 직원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선·후배 공무원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교육원에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 마당'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청내 '사내대학'에서도 다양한 세대 간 소통교육을 하고 있다.

/장기호 기자

## 전남도교육청, 농업교육협의회 교장단 협의회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4월 9일(금) 광양하이텍고등학교에서 전남 농업계고 교장 및 농업담당 부장교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농업교육협의회 이사회'를 열고 미래 농산업 육성 의지를 다졌다.

이번 이사회는 전남 농업계고등학교를 미래 농산업의 핵심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혁신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5월 21일(금) 열리는 제50년차 전남 FFK 전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의도 진행됐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의 전반적인 세부 계획을 점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농업교육협회 신임 회장에 광양하이텍고 강수원 교장이 선임됐다.

고광진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은 "제50년차 전남 FFk 전진대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해 안전하면서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남 농업계고가 미래의 농산업 핵심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고 단위학교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기호 기자